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활동유형	게임	활동수준	I수준
<p>활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부르며 ‘다리세기’를 할 수 있다. ■ 여행지에서 즐겁게 놀이하며 가족구성원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다. 		
<p>교육과정 관련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생활영역-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건강생활영역-나의 몸 인식하기-나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p>활동자료 (CD에 수록)</p>	<p>• 악보 </p>  <p>1. 이거리저거리각 거리 천 사만-사다만-사 2. 한다리두다리세 다리 인 사만-사주머니끈 3. 한다리두다리세 다리 너 희삼-촌어디갔니</p>  <p>조 리 김 치 장 독 간 총 - 채 비 파 리 딱. 칠 팔 월 에 무 사 리 동 지 선 달 대 사 리. 자 전 거 틀 고 치 러 오 콩 조 콩 부 지 깡.</p> 		
<p>활동내용 및 방법</p>			
<p>▶ 놀이의 유래와 풍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p>- 이 놀이는 진주지역에 내려오는 것으로 다리를 세는 놀이란다. ‘다리세기’, ‘다리 셈하기’, ‘발 헤기’ 라고도 부른다.</p>			

- 이 놀이는 비교적 나이 어린 여자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로서 온돌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주택 생활 풍습에 맞는 고유한 놀이이다. 특히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즐기기도 했는데, 아이들의 판단력과 민첩성을 기르고 가족과 친구들과 간의 우애를 다지는데 좋은 놀이였다.

▶ 놀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놀이방법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래에 따라 다리를 손바닥으로 짚어 가다가 노래가 끝나는 순간 미처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면 지게 되고, 날쌔게 오므려 버리면 다음 다리의 주인이 지게 된다.
둘째는 다리를 세어 가다가 ‘땡에 해당하는 다리는 오므리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몇 번 거듭하는 사이 먼저 두 다리를 모두 오므린 사람이 이기게 되고, 마지막 다리 하나가 남았을 때에는 다리와 방바닥을 번갈아 짚어 가면서 세어 가는데 ‘땡이 방바닥에 해당하면 그 판은 무효로 하는 곳도 있고, 마지막 다리의 아이가 꼴찌가 되지만 ‘땡이 방바닥인 경우 꼴찌 중에도 꼴찌가 되는 곳도 있다. 꼴찌가 된 아이는 이긴 아이들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 또 짐승이나 바보 흉내를 내게 하여 웃고는 한다.

▶ 노래를 배우고 난 후 즐겁게 게임한다.

- 노래를 부르며 ‘다리세기’를 한 기분이 어떠니?
- 가족들께 ‘다리세기’를 소개해 줄 수 있겠니?

▶ 게임 후에 부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야기 나눈다.

- 우리와 즐겁게 놀아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해 드릴 수 있을까?
- 부모님과 함께 ‘다리세기’ 놀이를 하고 난 후에 부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건 어떨까?

<p>활동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부르며 ‘다리세기’를 할 수 있는가? ■ 가족들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가?
<p>확장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영역에 온돌처럼 장판을 깔아주고 가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본 게임을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을 확장하여 모둠별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한 후 최종 게임 우승자를 뽑도록 한다.
<p>가정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행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는 게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정에 배부하고 게임 후에 유아가 부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한다.